DOI http://dx.doi.org/10.21792/trijpn. 2017..79.0015

# 근대일본의 朝鮮史만들기와 역사왜곡 실태분석

김서은*

本稿は日本の韓国史観の形成過程を時代的に調べて植民地朝鮮の歴史が歪曲されて教育された過程を分析した。明治以来実施された日本国学者の朝鮮の古代史の認識は基本的に韓半島は独立国ではなく、中国と日本の属国であったという他律性論に基づいている。このような傾向は歴史教科書の叙述でも一貫して書かれて、1920年最初に作られた朝鮮史の教科書から2000年代になる現代の扶桑社の歴史教科書まで一貫してその命脈を維持している。そして韓半島歴史の起源になる古朝鮮を認めないで、朝鮮は古代から日本の兄弟国だと説明する日鮮同祖論を提示している。

1869年から国家の正統性を確立するために歴史編纂事業を始めた日本は、朝鮮の侵略を正当化するために新しい植民史観である日鮮同祖論を作って古代史を再創造し、100余年も過ぎた今でも日本の教科書では歪曲された記録をそのまま教えている。本研究を通じて日本の韓国史歪曲がどれくらい徹底的で、計画的に進行されてきたのか知ることが出来るだろう。

キーワード：朝鮮史、 歴史教科書、扶桑社、韓国史歪曲、日鮮同祖論
(조선사, 역사교과서, 후소샤, 한국사왜곡, 일선동조론)

## 1. 序論

현재 한일관계 갈등의 중심에는 역사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베(安部)정권의 우경화 정책 심화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는 교과서왜곡의 문제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으로 일선동조론을 만들어냈다.

메이지 이래 실시된 일본 국학자들의 조선사에 대한 관심은 1910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serfenamour@naver.com

년 동화주의를 뒷받침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식민지 교육에서의 역사과는 이데올로기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오랜 연구로 집약된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를 공교육의 내용으로 채택하여 교육된 교과서의 역사왜곡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그대로 답습되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왜곡문제의 시작과 흐름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막연히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은 왜 끊임없이 잘못된 역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할까 분개해서는 안 된다.

이미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뿌리박혀버린 역사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시작부터 들여다보고,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가 어떻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배경과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는 1982년 '교과서 외교문제' 이후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1년 '일본역사교과서 파동'이 일어나며 '후소샤(扶桑社)'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일본의 한국사관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주창한 왜곡된 한국사관이 1920년 가장 먼저 편찬되어 조선사부분을 기술한 초등역사교과서인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1]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함께 당시 조선총독부에 설치되어 조선사 만들기에 돌입한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선사(朝鮮史)』[2]와의 관계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왜곡의 시작과 함께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에서 출발한 역사교과서의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영향관계까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왜곡의 어제와 오늘을

---

1) 본 논문의 주요텍스트는 朝鮮総督府 編纂(1920) 『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 券一, 朝鮮総督府 編纂(1921) 『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 券二이며, 이후 표기를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로 함.

2) 『조선사』에 대한 부분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에서 수집하여 번역한 『조선반도사』를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일본의 한국사관 형성과정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지방분권체제에서 천황제의 중앙집권적 근대국가를 형성한다. 대내적으로는 천황제 국가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해 신화 속의 천황을 내세워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국사학의 성립과 함께 대륙침략의 전진기지인 조선사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조선사는 스가와라 다쓰키치(菅原竜吉)의 『계몽조선사략(啓蒙朝鮮史略)』(1875)이다. 단군에서 고려멸망까지를 편년체 형식으로 다루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한 사실을 서술했다.

본격적인 메이지 신정부의 역사편찬사업은 1869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 5월 9일 국사편집국을 설치하고, 1872년 10월 행정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역사과를 두었다. 이듬해 복고기(復古記)를 편수하기 시작하였고, 1875년 4월 역사과를 태정관 수사국(修史局)으로 바꾸었다.[3)]

군에서도 역사 지리 조사에 나서 1878년 육군참모국이 폐지된 후 설치된 참모본부는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지리조사를 실시했다. 1883년 참모본부에서 파견된 사코 가게아키(酒匂景信) 중위가 광개토왕 비문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와 참모본부 편찬과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해독결과를 1889년『회여록(会余録)』에 발표하였다. 광개토왕 비문에 대한 참모본부의 해석은『일본서기(日本書紀)』와『고사기(古事記)』를 근거로 일본의 건국신화에 기술된 한국에 대한 지배, 즉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3) 최혜주(2010)『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경인문화사, pp. 20-21.

또한 1869년에 설치된 국사교정국(国史校定局)을 이어받은 국사편집국, 수사국(修史局)은 편년사편찬괘(編年史編纂掛;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의 전신)에서 『일본사략(日本史略)』(1877)과 그것을 개정한 『국사안(国史眼)』(1890)을 국학의 전통 속에서 일선동조론에 입각하여 발간하였다. 특히 1889년 도쿄대학에 국사학과가 설치되어 한국사가 아카데미즘에 토대하여 연구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4] 이러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한국사 연구는 훗날 한국사관 연구의 토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간행된 책들 중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朝鮮史)』는 청일전쟁 직전인 1892년에 저술하여 조선침략의 정당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최초의 근대적 통사로 대중적 조선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일제의 한국사 연구의 표본이 되었다.[5] 그는 서문에서 "神功의 征討와 奉命 納貢이후 남방일대가 우리나라(일본)에 복속되어 日本府를 세우고 군대를 두어 통치를 더욱 힘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이 개국 초부터 중국을 비롯한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강조한다. 기자로부터 천여 년간 모두 중국인의 견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 조선은 나라를 세운지 매우 오래다. 그렇지만 강역이 중국에 접근함에 따라 항상 그들의 견제를 받았다. 때로는 지나인이 와서 왕이 되었다. 혹은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 또한 본국인으로 왕이 된 자도 대개 지나에서 봉작을 받았다. 조공에 힘쓰고 사대의 예를 하지 않는 자는 매우 드물다. 이것을 보면 조선은 거의 중국의 속국인 것과 같다.[6] 『朝鮮史』 제3장

라고 서술하며 조선은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지배국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를 부정하고 도쿄제대에서 배운

---

4) 최석영(2012)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pp.444-445.

5) 이인철(2012) 『일제의 한국사 왜곡이 국사교과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선사(1938)』의 역사지리 비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박사논문, p.45.

6) 최혜주(2010) 앞의 책, p.291.

황국사관 그대로 신라의 国主는 이나히노미코토(稲飯命)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나일본부와 남선 경영, 신라와 백제의 일본 복속, 삼국의 문화전파를 일본에 대한 조공 또는 헌납으로 설명했다.

하야시의 『조선사』는 근대적인 학문방법을 가지고 일본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한말의 교과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성을 띤 한국사 연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1〉은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저서와 한국사 왜곡의 기록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왜곡

| 역사서 | 역사왜곡 내용 |
|---|---|
| **『국사안(国史眼)』(1890)**<br><br>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br>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br>호시노 히사시(星野恒) 공저<br>〈※도쿄제국대학교재〉 | ① 일본신의 아들 스사노오(素戔嗚尊)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이즈모(出雲)로 쫓겨나, 가라쿠니(韓国)로 가서 조선의 개국시조가 된다.<br>② 진무천황의 형인 이나히노미코토(稲飯命)는 신라의 왕이 된다.<br>③ 스이닌(垂仁)조에는 대가라를 임나(任那)라고 바꾸는데, 이때 임나일본부를 설치한다.<br>④ 스이닌천황은 아마노의 현손 다지마모리(田道間守)를 도코요노쿠니(常世国)에 보낸다.<br>⑤ 진구황후의 정벌과 신라왕의 조공약속 등 한 반도의 복속과정 기술.<br>⑥ 신라와 백제에는 '관사'를 두어 임나일본부가 이를 총괄하였으며 고구려도 조공을 바쳐와 한반도 전체를 복속시켰다. |
| **『일한고사단(日韓古史断)』**<br>(1893)<br>-요시다 도고(吉田東伍) | ① 스사노오가 조선개국의 시조로 등장하고 속국상태인 조선을 독립시킨다.<br>② 진구황후가 삼한을 정벌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 한반도의 남부를 경영하여 신라를 복속시켰다. |
| **조선사강『朝鮮史綱』(1895)**<br>-니시무라 유타카<br>(西村豊) | ① 스사노오 부자를 조선의 개국시조로 소개했다. 단군을 스사노오의 아들 이다케루로 보았다.<br>②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을 인정한다.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을 진구정벌 이래의 외정(外征)으로 인식, 그 뜻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
| **조선사(朝鮮史)** (1905)<br>-구보 덴즈이(久保天随) | ① 조선사의 단초는 기자조선과 위씨조선에서 비롯되었다. 스사노오의 아들인 이다케루를 단군으로 보았다.<br>② 진무천황의 형 이나히가 신라의 왕이 되었고, 조선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식민통치에 의해 개발되었다. |

이들 학자들의 한국사인식은 일선동조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쿄제국대학의 교재로 쓰인 『국사안』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학자들의 역사왜곡은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에까지 들어왔으며, 재조(在朝)일본인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의 역사왜곡의 기저에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조선은 역사적으로 타율적인 식민 국가였음을 알려줌으로써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표 2〉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사 만들기

| 역사서 | 역사왜곡 내용 |
|---|---|
| **『조선왕국(朝鮮王国)』(1896)**<br>-기쿠치 겐조 (菊池謙讓)[7] | ① 조선은 대륙문화의 조각덩이에 불과하며 "고조선이후의 역사는 족립된 역사가 아니며 국민의 역사가 아니며, 근거할 것 없는 '지나외사(支那外史)'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대적 타율성을 주장했다.<br>② 스사노오가 반도에 건너간 것을 증거로 조선과 일본의 교제가 태고부터 있어왔다.<br>③ 금관국이 일어나 일본부가 세워지기까지 낙동강 유역은 신라의 통제를 받았다.<br>④ 일본인 석탈해에 이르러 대업이 완성되어 신라로 칭하게 되었다.<br>⑤ 일본이 "총독부를 임나에 두고 진구황후 외정 이래 무용을 삼국에 떨쳤으며 백제가 일본에게 속방의 예우를 받았다"고 보았다.<br>⑥ 고려의 국시는 4대이며 제1기는 송, 제2기는거란, 제3기는 거란·송·여진에게 복종을, 제4기는 몽골, 제5기는 몽골·일본·명에 복종한 역사로 말했다. |
| **『한반도(韓半島)』(1901)**<br>-시노부 준페이 (信夫淳平)[8] | ① "단군은 스사노오"로 서술한 『일본상업사』처럼 태고시대 두 민족의 관계가 긴밀했다.<br>② 한토(韓土)를 정복한 진구황후는 스진(崇神)조에 그 성덕을 사모하여 귀화한 신라의 왕자 아마노의 후예이다.<br>③ 대가야가 스진 조에 귀복하여 미마나노쿠니의 호를 받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br>④ 일본군은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아래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이래 압록강까지 진격하였고, 삼국이 내부(来附)하여 조공을 바쳤으며 조선 전체는 일본의 부용국이 되었다. |

7) 국민신문사 특파원으로 교토에 있다가 1894년 한성에 와서 한말 정국에 깊이 관여하고 을미사변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8) 시노부 준페이는 1897년 한국주재 영사관으로 부임하여 4년간 근무하면서 관찰한 한국의 지리, 역사, 제도, 문물, 인정, 풍속 등을 11장으로 나누어 1901년 『한

| | |
|---|---|
| **『조선개화사 (朝鮮開化史)』(1901)**<br>-쓰네야 세이후쿠 (恒屋盛服)[9] | ① 지리적으로 신라와 백제는 일본의 식민지였다.<br>② 인종적으로 일본의 이즈모족이 한반도와 요동반도까지 장악하고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다.<br>③ 문화적, 외교적으로도 진구황후의 친정 이후임나일본부의 설치로 한반도가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표 2〉의 재조일본인들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고대사부터 당대사까지의 조선에 대해 끊임없이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한 일선동조론에 입각하면서 자신들이 바라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의 왕실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보고 부패한 양반들에 의해 조선이 몰락한 것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과의 통상조약은 일본의 이익 때문이 아닌 주선의 독립을 위해서이며, 갑신정변 또한 신진관료를 통해 반도를 독립시키려는 계획에서 일으키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조선사관은 신화시대부터 일본신과 단군이 형제라는 인식인 일선동조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삼국시대의 신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건국되어 조선반도는 유사 이래 독립 국가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조선에서 거주한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한일병탄은 침략이 아닌 보호의 논리로 각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조선사관은 이후 일제강점기 역사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왜곡된 역사를 재생산하고 창출해내면서 식민지 조선사를 교육시켰다.

---

반도』를 간행하였다.

9) 1874년 이후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동문회(東亜同文会)와 식민협회(植民協会)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개화사』를 집필하였다.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권고로 내각 기록국 관보과 보좌원이 되어 기록, 편찬, 관보사무를 감독했다.

## 3.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한일병탄이후 일제의 조선통치 기조는 민족동화정책이었다. 이러한 동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 것이 조선에 대한 조사연구였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조선조사연구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 일본인이 저들에게 일본 혼을 심어주지 않은 채로, 저들이 우리의 문명적 시설로 인해 지능을 개발하고 널리 세계의 형세에 접하게 되는 날에 이르러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미리 일본국민의 유의를 요한다. 이것이 대개 조선 통치의 최대 난관인데 내가 조선인의 철저한 자각을 바라는 동시에 조선 연구에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목전의 정치적 시설 이상으로 다시 영구적,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적 연구이다. 저들의 민족정신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내선동화의 진실한 사업은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조선인의 민족 심리, 정신생활에 걸쳐서 이해하는 바가 없으면 헛수고이다. 식민 정책의 근본은 반드시 여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나는 세인이 우원(迂遠)하다고 경시하는 학술적 조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의 보무(歩武)를 진행시키고 있다.[10]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데라우치는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키기 위한 동화정책 수립을 위해서 역사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총독부가 추진한 구관제도조사, 사료조사 등은 바로 이러한 목적 하에 계획되었다. 동화정책의 전제로서 추진한 이와 같은 조사 연구 활동은 곧바로 병탄의 정당성과 식민통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역사왜곡과 이의 선전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목

10)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Ⅴ-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도서출판 선인, p.10.

적을 구체화한 것이 고적조사사업과 사서 편찬이었다.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조선고적조사사업은 발굴 대상지역을 임나일본부가 위치했다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선동조론과 조선사의 타율성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한편 일제는 1911년 이후 총독부의 취조국(取調局)과 그 뒤를 이은 참사관실(参事官室)의 주도하에 '반도사' 편찬을 추진하였으나 중추원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사서 편찬의 계획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민사, 상사의 구관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1915년 참사관실의 업무가 중추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계획도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일제가 역사왜곡에 근저를 둔 사서 편찬을 계획하던 1915년 일제의 침략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国通史)』가 국외는 물론 국내에까지 반입되어 민족혼을 일깨움으로써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사서는 그들의 식민통치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항하는 식민사서의 편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결국 종래 거론되어 오던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이하 『반도사』)의 편찬계획을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16년 중추원 소속의 조선인과 도쿄제국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편찬체제를 정비하였고 동년 7월에는 편수의 지침이 되는 『조선반도사편찬요지』를 발표하였다. 일제는 이 요지에서 『반도사』의 편찬이 "민심훈육을 통해 조선인을 충량한 제국식민으로 만들어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표방함으로써 『반도사』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첫째, 일선인(日鮮人)이 동족(同族)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
>
> 둘째, 상고(上古)에서 이조(李朝)에 이르는 군웅(群雄)의 흥망기복과 역대의 혁명역성(革命易姓)에 의해 중민(衆民)이 점차 피비(疲憊)하게 되고 빈약에 빠지는 실황을 서술해서 금대(今代)에 이르러 성세(聖世)의 혜택에 의해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술할 것.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그치지 않고 용이한 식민통치를 위한 새로운 조선사 만들기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반도사』집필을 위해 자료 수집을 하면서 단군에 대한 사료를 압수하였다.『반도사』는 초고는 작성되었으나 3·1운동 이후 새로운 방향의『조선사』편찬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1924년『조선사』편찬사업에 흡수되었다. 그러나『반도사』기획의도였던 역사왜곡은『조선사』도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는 1921년에 이미 사이토 마코토(斉藤実) 총독의 발의로 계획되었다. 편찬위원회는 총독부의 훈령에 의해 설치된 사서 편찬을 전담하는 특별 기구였으나, 중추원 내에 설치됨으로써 사서편찬 업무가 제도적으로 중추원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선임된 직원들도 중추원 촉탁의 자격으로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편찬위원회가 중추원 내에 설치된 것은 중추원이 구한국 때의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어 한국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한국인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에 한국인을 참가시킴으로써『조선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쿄제대 교수인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가 편찬계획을 주도하였고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가 실무책임자로 편찬주임과 간사를 겸임하는 등 일본인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반도사』의 편찬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조선사』의 편찬을 계획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운동 이후 교육열의 급격한 고조에 힘입어 한국인 사이에서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 주장되었으며 이는 곧 조선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당연히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조선사를 독립과목으로 설정할 것과 왜곡된 조선사 교육의 시정 요구로 나타났고 이의 관철을 위해 학생들이 동맹휴교 항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조선사를 독립과목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해지자 일제가 이의 무마책으로 내세운 것이『조선사』편찬이었다. 즉『조선사』편찬을 통해 총독부가 한국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조선사의 학교 교육 요구를 희석시키고

자 하였다. 결국 중추원의 제반 사업 중 하나로서의 역사편찬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이 사업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데에는 이러한 대외 홍보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서 편찬과정에서 식민통치에 이용할 수 있는 식민사학적 요소를 뽑아 학교 교육에 반영하려는 저의도 있었다.

현재『반도사』는 고대편만이 탈고된 형태로 남아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총독부의『조선반도사편찬요지』에서 드러나듯이『반도사』편찬의 취지는 한민족과 일본민족이 동일한 종족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식민통치의 역사적 당위성을 구하는 데 있었다. 비록 간행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반도사』는 이러한 총독부의 편찬 취지를 충실히 수행한 어용 관찬의 식민사서였고 이에 참가한 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를 거치면서 더욱 식민사관으로 강화되어갔다. 이런 점에서『반도사』는 일제의 관주도 식민사학의 시초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사편수는 1922년 12월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이 그 발단이며, 마침내 1925년 6월에 조선사편수회의 관제가 공포되어 사업구모가 갖추어지고, 1938년 3월에 이르러 당초에 계획되었던『조선사』는 간행을 끝마쳤다. 이어서 이『조선사』에 이어지는 사료의 수집이 이어졌는데, 1945년 조선해방 후 사업은 신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조선총독부의 폐지와 함께 관제가 소멸되었다.

이 사업은 일본 및 조선의 학계와 온갖 관민의 권위를 망라한 대규모 조직으로 이루어져, 당초에 계획한『조선사』를 간행하기까지 15년 남짓한 세월과 100만에 가까운 국비가 들어가고 35권 2만 4천여 페이지의『조선사』(활판) 및 20종 100책에 이르는『조선사료총간』(사진판・활판), 3질 9집 225장의『조선사료집전』(사진판)이 출판되었다. 3,538책의『조선사고본』-『조선사』는 그 본문만을 인쇄한 것-과 3천 책에 달하는 사료복본류, 5천 매를 넘는 사료사진이 만들어지고, 구 쓰시마 번주의 종가에 내려오는 6만 점을 넘는 고문서, 기록, 고지도류를 비롯하여 조선의 여러 가문에서 내려오는 다수의 고문서, 기록, 전적류가 집적된 것이다. 그 후에도 조선 내외에서 귀중한 사료가 수집되어, 그 조사연구의 성과가 관계자의

저서와 논문으로, 또한 『연구휘찬(研究彙纂)』(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한편 『조선사』의 총목록・총색인 각 1책도 출판되었으며 『조선사료총간』도 속간되었다.[11]

『조선사』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관 재편을 위한 편찬의도에서 출발하였기에 조선사는 일본사의 일부분에 편입시켰다. 편찬에 관여한 일본인들 역시 조선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 안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사를 일본사의 일부분으로 사고하는 방식 또 이를 위한 역사사업은 종언을 고하는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침 방대한 사업의 영향력은 한일 양국에서 이후에도 확인된다. 1945년 이후 『조선사』의 편찬위원들은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었던 만큼 일본의 대학에 자리 잡고 전후 일본의 한국사 연구를 주도하게 되며, 일본 내 한국사 연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들의 시각과 연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본인들의 한국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편수회의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한 것이며, 『조선사』가 객관적인 편년체를 채택한 만큼 한국의 연구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한국사를 전공하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조선사』에 의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읽었으며, 『조선사』가 있어 사료를 읽는데 매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힐 만큼 『조선사』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다.[12]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의 용이한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식민지 조선사 만들기에 숙고하였고 그 결과 『반도사』에 이은 『조선사』의 편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역사의 재편은 역사서 편찬뿐 아니라 식민지 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11)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 앞의 책, pp.538-539.
12) 정상우(2011)『조선총독부의『朝鮮史』편찬사업』서울대학교박사논문, pp.270-271.

## 4.『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에서 파생된 역사왜곡

일제는 1912년 6월 〈教科用図書剣定規程〉을 반포하여 역사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에 있어 기존교과서의 검정을 무효화하거나 반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새로이 편찬 개정하여 식민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13] 그러나 1919년의 3.1운동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내지연장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조선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중등학교의 교육연한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수업연한의 연장에 따라 보통학교의 교과목에 일본역사가 추가되고, 중등학교 역사과목의 시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조치는 1922년 2월 15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1920년 11월에 각각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칙을 개정함으로써 1921년 4월 신학기부터 보통학교에서 역사수업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교과서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발행 역사교과서를 표로 제시해 보았다.

〈표 3〉 조선총독부 편찬 역사교과서 목록

| 교과서 명칭 | 발행연도 | 분량(페이지) |
|---|---|---|
| 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 児童用 巻一 | 1920년 | 43 |
| 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 児童用 巻二 | 1921년 | 62 |
| 普通学校国史, 児童用 上巻 | 1922년 | 183 |
| 普通学校国史, 児童用 下巻 | 1922년 | 179 |
| 普通学校国史 巻一 | 1932년 | 170 |
| 普通学校国史 巻二 | 1933년 | 150 |
| 初等国史, 巻一 | 1937년 | 191 |
| 初等国史, 巻二 | 1939년 | 231 |
| 初等国史, 第五学年 | 1944년 | 242 |
| 初等国史, 第六学年 | 1944년 | 320 |

13) 이명화(1991)『일제총독부간행 국사교과서의 식민사관』역사비평, p.53.

본고에서는 〈표 3〉에 제시된 역사교과서 중에서도 1920년대 편찬된 교과서인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巻一, 二)에 기술된 조선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3・1운동 이후 다음해에 이루어진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1920. 11. 9)부터 역사과목이 정식으로 포함되는데 이것은 식민지 교육을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본사 및 조선사 교육을 통하여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시기 조선인의 영구적인 지배를 꾀하는 동화주의 지배의 단계별 목표의 실현과 함께 정치적 측면에서 문화정치를 통해 반일감정을 억누르고 회유하기 위해 역사교육이 도입된 것이다.

수업시간 배당에서 일본 역사는 6년제 普通学校의 5, 6학년 과정에서 주당 2시간씩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임시변통으로 일본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심상소학국사(尋常小学国史)』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조선사 교재의 필요성에 따라 조선사만을 따로 편집한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를 시기별에 따라 첨삭하여 교육하였다. 따라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가 아닌 보충교과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편찬한 아동용 조선사교재이기에 이후 교과서에도 영향을 끼쳤다.

〈표 4〉『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의 시대구분과 내용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巻一 (1920) | | |
|---|---|---|
| 시대구분 | 단원명 | 내 용 |
| 上古 | 1. 상고의 조선반도 | 북부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 漢四郡), 남부조선(韓種族), 고대 한일의 교통 |
| 三国<br>三韓時代 | 2. 삼한 |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일본과 任那諸国과의 관계 |
| | 3. 문학, 불교, 문예 | 문학전래, 高興과 王仁, 일본으로 불교와 공예 전래 |
| | 4. 일본부 1 | 일본과 삼국의 관계, 광개토왕, 삼국의 수도 |
| | 5. 일본부 2 | 일본과 신라의 관계, 신라의 부흥, 수・당과 삼국의 관계 |
| | 6. 백제, 고구려의 멸망 |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

| | | |
|---|---|---|
| 통일신라 | 7. 신라통일 | 문무왕의 삼국통일, 일본 및 당으로 복속(服属) 신라의 멸망 |
| 고려초기 | 8. 고려 1 | 고려 태조의 업적, 성종, 거란에 복속, 고려의 전성기 |
| 고려중기 | 9. 고려 2 | 왕실권력 약화, 금에 복속, 무인시대, 몽고에 복속 몽고, 고려, 일본의 관계 |
| | 10. 고려 3 | 주자학의 전래, 공민왕과 미신 |
| 고려후기 | 11. 고려 4 | 고려의 멸망 |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巻二 (1921) | | |
| 조선초기 | 1. 조선의 태조 | 태조 즉위, 국호 천도 등, 정도전의 난, 정종의 즉위와 양위 |
| | 2. 태종 및 세종 | 태종, 세종의 업적, 대마와 수교, 북방 개척 |
| | 3. 세조 | 세조의 치적 |
| | 4. 조선의 문화 | 중앙정부 및 지방제도, 교육, 서원, 경국대전, 활자, 천문, 건축, 공예, 불교 |
| 조선중기 | 5. 사화와 붕당 | 사화와 붕당의 폐해 |
| | 6. 임진왜란 | 일본의 정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 |
| | 7. 병자호란 | 청으로 복속 |
| | 8. 영조 및 정조 | 두 왕의 치적, 서양문물의 전래 |
| 조선후기 | 9. 대원군의 執政 | 이태왕의 즉위, 대원군 집정, 일본의 국교요청 거부 |
| | 10. 강화도 조약과 임오군란 | 강화도사건, 명성왕후와 대원군, 임오군란과 청의 태도 |
| | 11.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 갑신정변, 청일전쟁, 日鮮동맹, 갑오개혁, 시모노세키조약 |
| | 12. 대한제국 | 러시아와의 관계, 갑오개혁 이후의 진보 |
| | 13. 통감부의 설치 |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한일조약, 통감부의 설치 |
| 일본 통치기 | 14. 한일병합 | 한일병합의 당위성 |
| | 15. 총독정치 | 조선총독부 설치, 메이지천황의 덕, 총독의 新政, 총독부의 정치 방침 |

〈표 4〉를 보면 2권으로 구성된『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의 1권은 고조선부터 고려말기까지 2권은 태조의 조선건국부터 일본의 통치까지 총 26과로 구성되어 있다. 명확한 시대구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왕조의 교체에 따른 시대구분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부성에서 편찬된『심상소학국사(尋常小学国史)』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단원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의 경우 조선시대에 들어와 5과(태조, 태조 및 세종, 세조,

영조 및 정조, 대원군)에서만 인물 중심의 기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대외관계에 중심을 둔 단원을 내세운 점도 이 교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조선후기와 일본통치기에 들어서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1922년 새로 개정된 총독부 편찬『보통학교국사(普通学校国史)』(上, 下)는 문부성 편찬『심상소학국사(尋常小学国史)』의 구성에 맞춰 조선사 또한 인물 중심의 단원명으로 맞춰 끼워 넣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에서 시작된 역사왜곡이 현대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01년과 2005년 후소샤의 역사교과서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대사 부분을 보면 조선사의 시작에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는다.『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의 제1과「상고의 조선반도(上古の朝鮮半島)」의 기술을 살펴보자.

> 옛날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 하고 지나[14]에서 기자가 와서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위만이이라는 자가 이 지방에 들어와 기자의 후손인 준을 내쫓고 나라를 빼앗았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의 통치기에 한의 무제가 그곳을 공격해 멸하고 그 지역에 4군을 두었다. 이후 수백년동안 한반도의 대부분은 지나의 영지가 되었다. 한은 그 당시 지나의 국명이었으며 무제가 조선을 빼앗은 것은 우리 가이카천황의 시대였다. 한반도의 남부에는 한종족이 살았는데, 마한, 진한, 변한 3국으로 나뉘었다. (중략) 후에 마한은 가라 등의 여러 지역이 되었다. 가라 등 여러 지역을 하나로 임나제국(任那諸国)이라 불렀다. (중략) 아마테라스신의 동생 스사노오는 그의 아들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가셨다. 스진천황 때 가라국이 처음으로 사자를 일본 조정으로 보냈으며, 스이닌천황 때에는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가 일본으로 옮겨와 그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어졌다.[15]

---

14) 지나는 중국의 일본식 표기이나, 일제시대의 교과서 표현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나'로 번역하였다.

15) 昔、半島の北部を朝鮮といひ、支那より箕子来りて其の地に王となれりといふ。其の後、衛満といふもの此の地方に入り、箕子の後なる準を追ひて国を奪へり。衛満

고대사 부분에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고대로부터 중국의 속국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나에서 온 기자가 한반도 북쪽을 수백년동안 다스리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5〉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

| 2001년판 | 2005년 검정 |
|---|---|
|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의 지배를 받았다. (p.20) | 조선에는 고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발생하였지만 한에 의해 멸망당했다. (p.13) |

〈표 5〉를 통해 조선의 역사가 중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제강점기 첫 역사교과서의 교육내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고조선 건국의 역사적 고증은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병탄 이후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제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우리의 고대사는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고의 조선반도』의 기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의 첫 역사교육은 그 첫 장부터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마테라스의 형제 스사노오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일본에서 이어졌다는 부분은 메이지시대의 국학자들의 사서들의 명맥을 잇고 있다.

또한 제 2과 「삼한(三韓)」에서는 신라의 제4대왕 석탈해는 일본

---

の孫右渠の時、漢の武帝之を攻め滅ぼし、其の地に四郡を置けり。これより数百年の間、半島の大部分は支那の領地となる。漢とは其の時の支那の国名にして、武帝の朝鮮を取りしは、我が開花天皇の御時なり。半島の南部には漢種族住み、馬漢・辰漢・卞漢の三種にわかる。後に至り、馬漢は加羅などの国国となれり。加羅などの国国を指して一に任那諸国といふ。天照大神の御弟素戔嗚尊は、其の御子と共に朝鮮に渡り給ひしことあり。崇神天皇の時、加羅国はじめて使を日本の朝廷につかはし、垂仁天皇の御時、新羅の王子天日槍は日本に移り、其の子孫永くつづけり。(朝鮮総督府 編纂(1920)『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巻一、pp.1-3. 필자번역 이하 동)

에서 와서 왕위를 계승한 일본인으로 서술하고 있다.(第四代の王昔脱解は日本より来りて王位に即ける人なりといふ) 그리고 『반도사』에서 "고구려의 민족은 만주족"이라는 기록과 같이 고구려는 만주족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의 성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부는 만주족이 세운 고구려가 있었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은 고대로부터 조선은 독립된 영토가 아닌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으며 한반도의 남부는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러한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대한 주장은 제4과와 제5과의 「일본부」라는 과에서 극대화되며, 후소샤의 역사교과서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여 지도까지 제시하며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신라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라고 적고 있다.

>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신라는 항상 일본의 조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16] 제7과 「통일신라」

> 이로부터 수 백년간 거란의 속국이 된다.[17] 제8과 「고려 1」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상고부터 고려 말까지를 기술하고 있는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巻一은 한반도에서 여러 국가가 발생하였지만 모두 중국과 일본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조선사의 왜곡의 서막이었다.

또한 조선의 태조부터 총독정치를 기술한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巻二에서는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은 당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과 유사한 4색 당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또한 6과 「임진왜란」 부분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화친을 하면서 조선에서 사신을 에도 막부로 보냈고, 이후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서 사절을 보내 축하하는 것이 관례가 되

16) 此の時代においても亦新羅は常に朝貢を怠らざりき。朝鮮総督府 編纂(1920) 前掲書、p.15.
17) これより後数百年間、契丹の属国になれり。朝鮮総督府 編纂(1920) 前掲書、p.19.

었다"고 적고 있다.

〈표 6〉 후소샤의 조선 통신사 왜곡

| 2001년판 | 2005년 검정 |
|---|---|
| 막부는 이에야스 때, 대마의 종(宗)씨를 통하여,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어 있던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였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선으로부터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로 불리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받았다. (p.131) | 막부는 이에야스 시절, 쓰시마의 종씨를 통하여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어 있던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였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조선으로부터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통신사로 불리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p.106) |

조선통신사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일본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기적으로 오는 축하사절단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그 규모도 400여 명 내외였다. 이러한 통신사의 파견을 마치 조선에서 막부를 위한 관례로써 자발적으로 보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1920년 교과서의 기술은 아직까지도 답습되고 있다.

또한 10과「강화도조약」부분에서도 역사왜곡이 시작되었다.

> 메이지 8년 일본군함 운요호가 조선 근해를 통과하며, 음료수를 얻기 위해 강화도 앞으로 다가가자 돌연 포대의 포격을 당해 이에 응전해 부근의 포대를 함락시켰다. 이듬해 일본의 사절이 와 이 일에 대해 담판을 지었다. 조선정부는 그 죄를 사죄하고 또한 위원을 보내 일본의 사절과 강화도에서 회합하여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18]

18) 明治8年日本軍艦雲揚号朝鮮の近海を過ぎ、飲料水を得んがため江華島前に来り、不意に砲台より砲撃せられしかば、之に応戦して附近の砲台を陥れたり。翌年日本の使節来り、此の事につきて談判す。朝鮮政府は其の罪を謝し、又委員をして日本の使節と江華府に会合して修好条約を結ばしむ。『朝鮮総督府　編纂(1921)　前掲書、pp.26-27.

1873년 집권 10년 만에 흥선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1874년 9월 일본에 서신을 보내 양국의 돈독했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하자는 서신을 보냈다. 일본은 이 서신을 통해 조선의 조정이 약화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간파하고 대포를 쏘아 조선을 위협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을 개국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요호를 조선 연해에 파견하였다. 1875년 5월 25일 부산에 입항한 운요호는 배수량 245톤, 106마력으로 당시최신식 군함이었다. 운요호와 함께 온 배 두 척은 조선의 항의를 무시하고 연안을 측량하고, 대포를 쏘았다. 8월 21일에는 강화도 동남쪽 부근에 운요호가 또다시 나타나 물을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를 내리고 군인들을 나누어 태웠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의 해안을 측량하고 상륙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수군은 포격전으로 대응했으나 일본은 이 모든 책임을 조선 측에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876년 2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 3척에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강화도 근해에 다가갔을 뿐인데 먼저 대포를 쏘고 위협했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다. 2000년대에 편찬된 후소샤 교과서는 이러한 강화도조약을 역사적 검증 없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미국이 맺은 수호조약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기술하면서 “상대국만 치외 법권을 인정하고 일본에는 관세 자주권이 지켜지지 않은 등 일본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구미제국과의 법적 차별을 해소할 조약 개정은 메이지 일본인의 숙원이자 일본 외교의 최대의 과제였다.”고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조선에서의 불법 행위와 무력으로 얻어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일본이 피해자이고 조선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

또한 한일병탄 후 제15과 「총독정치」단원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마무리하고 있다. 1920년대 역사교과서부터 시작된‘조선 근대화론’은 후소샤의 교과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표 7〉 후소샤에 실린 조선 근대화론

| 2001년판 | 2005년 검정 |
|---|---|
| 한국 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가 된 조선에 철도,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 (p.240) | 한국병합 후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철도,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여 근대화에 노력하였다. (p.170) |

진정한 근대화는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에서 근대 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변화를,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에서 공업화를 통한 산업자본주의로, 사회적으로는 전근대 신분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문화적으로는 특권 귀족문화로부터 일반 국민 중심의 민중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여러 측면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화가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가 큰 것은 산업 혁명 또는 공업화가 근대화의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대변되는 한국의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는 일제의 의도적인 방해로 크게 지연되고 왜곡되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근대 사회에 진입한 대한제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산업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기 보다는 일제의 한반도 공업화 억제 정책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 자본주의 사회로의 길을 계속해 갔다. 한반도가 산업 자본주의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디딘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일제는 식민정책을 무리 없이 조선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조선의 경제를 발달시키고 부흥시킨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력 착취와 수탈로 이어진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 경제는 피폐해져 갔다. 이러한 식민지의 실상이 알려진 현재까지도 일본의 조선사관은 100여 년 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 5. 結論

지금까지 일본의 한국사관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식민지 조선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육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메이지 이래 실시된 일본 국학자들의 고대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독립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타율성론에 근거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어 1920년 조선총족부 편찬의 최초의 조선사 기록 교과서부터 2000년대의 후소샤의 역사교과서에서까지 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역사의 기원으로 여기는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은 고대로부터 일본의 형제국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선동조론을 제시하고 있다.

1869년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편찬사업을 시작한 일본은 조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식민사관인 일선동조론을 만들어 고대사부분부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역사왜곡을 시도하였으며,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왜곡된 기록을 가르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00여 년 동안 식민지 통치의 기저를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가 당당히 역사서로 인정받아 아동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에 실려, 교육에 이용되었다면 사람들은 식민사관이 만들어진 역사관이라는 사실에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메이지 정부의 역사편찬사업에서 시작된 조선사의 역사 왜곡은 아카데미즘과 결합하고 교육에 활용되는 일련의 정교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Ⅴ-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도서출판 선인, p.10, pp.538-539.
이명화(1991)『일제총독부간행 국사교과서의 식민사관』역사비평, p.53.
이인철(2012)『일제의 한국사 왜곡이 국사교과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조선사

(1938)』의 역사지리 비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박사논문, p.45.
정상우(2011)『조선총독부의『朝鮮史』편찬 사업』서울대학교박사논문, pp.270-271.
최석영(2012)『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민속원, pp.444-445.
최혜주(2010)『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경인문화사, pp.20-21, p.291.
朝鮮総督府 編纂(1920)『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券一、pp.1-3, p.15, p.19.
朝鮮総督府 編纂(1921)『尋常小学国史補充教材』券二、pp.26-27.

〈Abstract〉

#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Modern Japan's Invention of the Korean History and its Historical Distortion

Kim, Seo-Eun

In this article, we conduct a chronologic analysis of the process whereby the Japanese conception of the Korean History has been formed, exploring the process whereby they have taught about the history of the colonized Korea in a distorted manner.

The Japanese scholars of ancient Korea at the time of Meiji era (and onwards) were exclusivism, their tenet being that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host an independent country but belongs to China and Japan. This tendency has been consistently observed in history textbooks across the time, especially from the textbook of the Korean history published in 1920 to the contemporary textbook published by Fusosha Publishing in 2000s. These textbooks do not admit the existence of ancient Korea as an origin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dvocate the Japanese- Korean common-ancestor hypothesi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been in a sister relationship since the ancient times.

Japan, which had since 1869 initiated the work of compiling historical facts in order to validate the country, invented the aforementioned hypothesis for the purpose of validating their aggression of Korea, and, although more than 10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textbooks in Japan still describe this distorted record. The present article reveals the thoroughness of, and its planned nature of, Japan's distortion of the Korean history.

Key words : Koreanhistory, historytextbook, Fusosha Publishing, distortion of the Korean history, Japanese-Korean common-ancestor hypothesis

투 고 일 : 2017년 10월 15일
심 사 일 : 2017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0일